

3. 중국 금융기관 파산 조치의 파장

- (배경)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특히 廣東省을 비롯한 지방 금융권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, 10월들어 정부는 2개의 信託投資公司에 대해 파산조치를 취함
- (전망) 정부의 금융 부문 장악력으로 총체적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, 對중국 투자 감소, 금융 개방 지연 및 중앙 정부의 금융 통제 강화 등이 예상됨
- (기업의 대응) 향후 중국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조기 상환, 중국 금융 개혁에 따른 대응, 금융 불안 지속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이 필요함

□ 최근 금융기관 파산 조치의 배경과 의의

- (배경)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은 전체 대출의 25%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금융 불안 가능성이 보이며, 특히 지방 금융권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¹⁾
 - 廣東省의 경우 신탁투자회사 중 90% 정도가 관리 부실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지역적인 금융 불안 현상이 중국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 - 4대 국유 시중은행 중 3개가 부실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며, 지난 6월 지방 국유은행인 海南發展銀行, 10월 威海商業銀行이 파산하였음
 - 현재 440여개의 국유 신탁회사 중 1/3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으며, 나머지 1/3은 적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금융기관의 부실 원인: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경영 악화 (50%이상이 만성적 적자) 및 금융기관의 '도덕적 헤이'²⁾를 들 수 있음
- (파산 조치) 지난 10월 6일 中國人民銀行은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(GITIC)의 파산 방침을 발표하였으며, 뒤이어 廣州國際信託投資公司(GZITIC)도 파산하였음
 - GITIC은 廣東省 정부가 출자하는 중국내 국제신탁투자공사 중 3번째 규모의 '광역 논뱅크'로,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을 창구로 하여 해외로부터의 자금으로 廣東省 및 홍콩 등에 인프라 건설 및 고급 호텔 건설에 투자하였으나, 최근 부동산

1) 人民銀行 부행장은 부실채권 중 완전 회수 불능 대출은 전체 대출의 6~8%라고 밝히고 있음

2) 정부가 어차피 국유은행을 파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, 주요 주주인 지방 정부의 대출 요구에 쉽게 응하며,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실채권 증가를 방임하는 경우도 있음

가격의 폭락으로 위기에 처함

- 中國銀行 廣東省分行이 99년 1월 6일까지 GITIC 기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신고 받은 후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으며, 부채 인수 범위를 합법적인 외채와 국내의 정상적인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음

- (의의) 최근 금융기관의 파산 조치는 국부적인 금융 불안이 중국 전체의 금융 시스템 붕괴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

- 금번 조치는 중앙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국유기업 개혁, 행정기구 개혁, 금융제도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2000년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의지임
- 이 개혁에 따르면 부실채권이 전체의 25%이상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정리됨

□ 향후 전망

- 외국 투자자의 투자 감소 및 국유 기업들의 외자 유치 비용 증가가 예상됨

- 특히 廣東省 지역에 대한 일본, 한국, 홍콩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廣東省 경제의 위축이 예상됨
- 이번 조치로 국유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여, 자본 유치 비용이 증가할 것임(홍콩 증시의 레드칩 주가는 10월 8일 평균 14.5% 하락)

- 중국은 금융 부분의 개방 일정을 미루면서, 금융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당분간 강화할 것으로 보임

- 향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내부 개혁에 주력할 것이며, 2000년으로 예정된 위안화의 자유 태환 목표 등 금융 부분의 조기 개방 일정은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보임
- 지방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며, 부실화된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임

- 총체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으며, 정부의 금융 부문에 대한 직접 통제력이 아직까지 견재하여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임

-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, 금융시장 개방이 제한적이며, 아직까지 중국 국민들의 저축율과 금융기관 신뢰도가 높음
- 금융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, 8%대 성장을 통한

경제 안정을 꾀하는 성장 중심의 사고가 지속되고 개혁이 지체된다면, 금융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함

→ 이 경우 예금 인출 사태 ⇒ 정부의 화폐 증발 ⇒ 인플레이 심리 상승 ⇒ 물가 상승 ⇒ 경제·사회 불안 ⇒ 외국인 투자 감소 ⇒ 성장 위축(내수 감소) ⇒ 실업 증가 ⇒ 스태그플레이션의 효과가 발생하여, 경제 성장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

□ 우리 기업의 대응

- 우리 금융기관의 對GITIC 채권이 약 2억 6,000만 달러이며, 廣東省에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없으나, 향후 廣東省 지역과 관련된 간접 피해는 예상되어 안전 조치의 마련이 필요함
 - 우리 금융기관의 채권은 GITIC 총부채 14억 1,000만 달러의 15%인 2억 6,000만 달러으로 10대 채권국 중 일본(4억 4,300만 달러)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
 -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중국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, 독자적으로 해외에 기채하고 부실채권을 늘려온 廣東, 海南省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함
 - 廣東省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연쇄적 부도 혹은 자금경색 현상이 초래되는 데 따른 피해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, 廣東 지역과 관련된 지급 보증과 담보 등에 대해 문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
- 향후 중국의 금융 개혁의 진전에 발맞춘 대응이 필요함
 -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,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
 - 대출 심사의 강화 조치로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이 점차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중국 진출 기업 중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의 현지 금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, 그렇지 못한 기업은 오히려 현지 금융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
- 중국 금융 부문의 불안이 지속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
 -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를 위한 헷징이나 무역 파트너에 대한 신용 평가,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타날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비한 달러화 표시 채무 비중 감소 등이 필요함

(황 동 언 hde@hri.co.kr ☎724-4055)